

‘닛산 한국 철수’는 예정된 수순?... 르노·BMW 등 구조조정 폭풍

셋다운·감원·철수... 글로벌 車업계의 ‘역주행’

닛산, 한국 이어 러시아서도 철수 르노그룹, 1만5000명 감원 계획 BMW, 5000여 명 희망퇴직 실시 미래 대비 전기차 투자는 확대



일본 닛산자동차가 한국 진출 16년만에 철수 계획을 밝힌 가운데 29일 서울 성동구 소재 닛산-인피니티 서비스 센터 부근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닛산도 일본 차 불매 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5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닛산자동차가 올해를 끝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판매량 감소와 한국 내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닛산은 한국과 더불어 러시아 시장에서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공장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공장 역

시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닛산은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문제는 닛산뿐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감원 등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유럽지역에서 자동차

업계 일자리가 최소 3만5000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르노그룹은 5월29일 1만5000명 감원과 공장폐쇄 계획을 발표했다. 르노그룹은 프랑스 생산시설 6곳을 폐쇄 또는 구조조정해서 4600명을 줄이고 나머지 지역에서 1만명 이상을 내보낼 계획이다. 모로코와 루마니아 생산시설

확대는 중단하고 러시아 사업은 재검토한다. 이번 발표에 한국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BMW는 50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하고 독일 부품업체 ZF는 5년간 최대 1만5000명 축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동차업체들은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줄이는 대신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는 꾸준히 늘려갈 방침이다.

르노그룹은 구조조정으로 3년간 20억유로를 확보하고 전기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도 최근 자동차 산업에 80억유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르노그룹을 프랑스·독일 공동 전기차 배터리 개발 계획에 참여시켰다.

독일의 폴크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 폴크스바겐은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에 20억 유로를 투자한다. 폴크스바겐은

장화이(江淮·JAC)자동차와의 합자회사 지분을 50%에서 75%로 높이는 등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10억유로를 투자한다. 폴크스바겐은 2025년에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150만대 판매 목표를 갖고 있다.

독일 다임러도 전기차 판매계획은 수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임러는 다른 부문에서는 수요 위축을 고려해서 계획을 일부 조정했다. 다임러는 하반기에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순수전기차를 내놓는 일정도 유지했다.

현대차·기아차도 내년에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내놓기로 했다. 현대차 준중형크로스오버(CUV) 모델인 NE(개발코드명)가 내년 초에 나온다. 기아차도 CV(개발코드명)를 준비 중이다. 제네시스는 G80 기반 전기차와 E-GMP 기반 CUV인 JW를 출시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태양광 연계 ESS 공동 개발... 현대차-한화큐셀 ‘ESS 동맹’

전기차서 회수 배터리 재활용

현대자동차그룹과 글로벌 태양광 선도기업 한화큐셀이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과 한화큐셀은 지난 29일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에서 현대차그룹 지영조 사장, 한화큐셀 김희철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연계 ESS 공동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와 태양광 시스템을 연계한 신사업 협력이 핵심이다. 현대차그룹과 한화큐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ESS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스템 구축 비용을 대폭 낮춰 ESS를 대규모로 보급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두 회사는 앞으로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기반 가정용, 전력용 ESS 제품 공동 개발 및 한화큐셀 독일 연구소 내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한

실증 전개할 예정이다. 양사는 MOU와 동시에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해 유럽,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연계 가정용, 전력용 ESS에 대한 공동 개발을 즉시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은 한화큐셀과의 협력을 통해 태양광 연계 ESS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한화큐셀은 태양광 발전 설비와 가격 경쟁력 있는 ESS 패키지 상품 공급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지영조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장(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을 활성화 하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을 최대화함으로써 전기차의 친환경 가치사슬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은 “이번 협력으로 양사 간 우수 R&D 역량을 공유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통해 태양



(왼쪽부터)오재혁 현대차그룹 상무,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 지영조 현대차그룹 사장, 홍정권 한화큐셀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광 모듈부터 ESS까지 제공하는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고양시는 100% 드립니다

4인가구 기준 약 정부 87만원, 고양시 13만원 분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원대상 고양시민 모두 (주민등록 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사용처 경기도내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등)

사용기한 2020.8.31.까지 사용 ※ 잔액 환급 불가

지원금 신청 방법 꼭! 확인하세요!

- 01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 02 오프라인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일 모두 / 방문접수불가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 토·일 방문접수 불가)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으로 받고 싶다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가능

신용기간 ▶ 5월 11일(월) 07시~
온라인 세대주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5월 18일(월) 09시~
오프라인 세대주 사용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신용기간 ▶ 5월 18일(월) 09시~
오프라인 거주지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대상 가구의 세대주,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세대주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 등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 5월 18일(월) 09시~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